

육아지원기관 이용기간과 아동의 언어·인지 발달 정도의 상관관계

Correlation of 'The Period of Child Care Support Agency' and 'Child Language·Cognitive Development'

이예진*, 박현춘*, 노진원**

울지대학교 의료경영학과*

울지대학교 의료경영학과/국제보건의료센터, Department of Health Sciences, Global Health,
University Medical Centre Groningen/University of Groningen, Groningen, the Netherlands**

Ye-Jin Lee(yiye1110@gmail.com)*, Hyunchun Park(syonghamo@naver.com)*,
Jin-Won Noh(jinwon.noh@gamil.com)**

요약

본 연구는 육아지원기관 이용기간과 아동의 언어·인지 발달 정도에 어떠한 상관관계가 있는지 연구하고, 이를 통해 아동 발달을 긍정적인 측면으로 이끄는 데 그 목적이 있다. 이를 위하여 육아정책연구소 한국아동패널의 5차년도(2012) 자료를 사용하였으며, 조사에 응답한 1703가구 중 대상을 제외한 총 913가구를 대상으로 하였다. IBM SPSS Statistics SPSS 23 프로그램을 이용하여 빈도분석, t검정, 분산분석, 다중 선형회귀분석(multiple linear regression analysis) 등을 통하여 결과를 도출하였다.

분석 결과, 육아지원기관 이용 기간과 아동의 언어·인지 발달 사이에 유의한 상관관계가 있었으며, 육아지원기관 이용기간이 길수록 아동의 언어·인지 발달이 높다는 것을 알 수 있었다. 이를 보건 정책에 적용하여 무상보육정책을 확대한다면, 아동의 언어와 인지 발달 정도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이라 예상된다.

■ 중심어 : | 육아지원기관 | 이용기간 | 아동 언어·인지 발달 |

Abstract

This study is to investigate the correlation of the period of child care support agency and child language-cognitive development and to lead the development of the child in a positive side. For this purpose, Korea Children's Panel's 2012 data by the Korea Institute of Child Care and Education (KICCE) were used, selected 913 children of total 1703 parts. The result was derived from the results of frequency analysis, t-test, one-way ANOVA and multiple linear regression analysis.

Analysis result, there was significant correlation between the period of child care support agency and child language-cognitive development, and the longer the period of child care support agency was the better child language-cognitive development. Applying this results in health policy to expand the 'Free Childcare Policy', it will be higher for young child language and cognitive development.

■ keyword : | Child Care Support Agency | the Period | Child Language·Cognitive Development |

1. 서론

1. 연구의 필요성 및 목적

현재 우리나라는 무상보육정책의 일환인 ‘누리과정’을 시행하고 있다. ‘누리과정’이란 유치원·어린이집의 구분 없이 동일한 내용을 배우는 공통의 보육·교육과정으로, 부모의 소득 수준에 관계없이 모든 계층의 아동에게 유치원 유아학비와 어린이집 보육료를 지원하는 정책이다. 2012년 3월 1일부터 5세 누리과정이, 2013년 3월부터 3-4세 누리과정이 시행되어 현재는 3-5세의 모든 아동에게 시행되고 있다[1]. 이로 인해 만 3-5세 아동의 유치원과 어린이집 이용률이 증가하여 약 90.0%(2015년 기준)에 달하며, 이를 지원하기 위한 예산도 증가하고 있다[2]. 이처럼 무상보육정책은 아동의 육아지원기관 이용을 증가시키고 있다.

육아지원기관을 이용하는 이 시기의 아동은 언어와 인지 영역에서 상당한 발달을 보인다. 아동은 의사소통 방법을 학습하게 되어, 문법적인 문장을 형성할 수 있게 되고 어느 정도 자연스러운 회화와 분명한 발음이 가능해진다. 또한 기억력이 증가하여 사고의 폭이 넓어지며 전보다 높은 수준의 인지 능력이 생겨난다.

육아지원기관의 이용과 아동의 발달에 관련된 선행 연구를 살펴보면, 긍정적인 결과와 부정적인 결과를 모두 알 수 있다. Clarke-Stewart(1992)는 육아지원기관을 이용한 아동과 그렇지 않은 아동의 발달을 비교하였다. 육아지원기관을 이용한 아동은 그렇지 않은 아동보다 높은 발달 결과를 보였다. IQ 점수가 높았고, 눈과 손이 협응하였으며, 수학능력이 높았다. 또한 놀이 과정에서 더 창의적인 수행을 보였고, 주변 환경에 대해 더 탐구적인 행동을 보였다. Nichd Eccm(2003, 2004)는 또한 아동의 육아지원 서비스 이용은 아동의 인지 사회 정서 발달에 긍정적 영향을 주며, 특히 취약계층과 이주된 가정의 아동에게 더 그러하다고 하였다. 반면 Belsky(1988, 1990, 2001)는 지나치게 긴 시간 비모성양육에 노출된 아동이 주로 애착형성에 부정적이며 공격 행동이 증가하고 비순응적인 것과 관련이 있다고 하였다.

최근의 연구를 살펴보면, 최윤경, 이운진, 김세현, 나

지혜(2012)는 스트레스 호르몬 조사를 통해 육아지원기관에 머무는 오후에 아동의 스트레스호르몬 분비가 높고, 귀가하면 분비가 상대적으로 낮아져 육아지원기관의 이용이 아동에게 스트레스가 됨을 연구하였다. 하지만 이용시간이 긴 아동은 그렇지 않은 아동에 비해 상대적으로 발달수준이 높았고, 사회정서행동 또한 좋았다. 오경희, 나은경, 박의향(2015)은 유아의 육아지원기관의 이용시간과 놀이 방해 행동에 영향이 있으며, 특히 평일이용시간이 길수록 유아의 놀이방해행동이 높다고 하였다.

결론적으로, 무상교육정책의 실시로 아동의 육아지원기관 이용은 증가하는 실정이며, 이 시기의 아동들은 생애 초기단계의 발달이 급격하게 이루어지는 중요한 단계에 놓여있다. 본 연구는 급격한 발달을 겪고 있는 아동들에게 육아지원기관의 이용이 직·간접적인 영향을 미칠 것이라 생각하여, 육아지원기관 이용의 대상이 되는 아동들 중 48개월에서 54개월의 아동의 발달에 육아지원기관의 이용기간이 어떠한 영향을 미치는지를 아동의 언어발달과 인지발달을 통해 살펴보고자 한다. 본 연구는 육아지원기관 이용기간과 아동의 언어·인지 발달에 어떠한 상관관계가 있는지를 조사하고, 더 나아가 그 결과를 보건정책에 적용하여 아동발달을 긍정적인 측면으로 이끄는 데에 그 목적이 있다.

2. 이론적 배경

2.1 우리나라 육아지원기관의 종류와 의미

우리나라의 육아지원기관은 종류에 차이가 있으나, 어린이집과 유치원이 대부분으로 이원화되어 있다고 할 수 있다. 수요자 부모의 요구에 따라 더 긴 시간과 맞춤형 형태의 지원이 증가하고 있고, 다양한 시간으로 설계된 종일제나 시간제 보육과 교육으로 확대되고 있다[3].

‘어린이집’이란 친권자·후견인, 그 밖의 사람으로서 영유아를 사실상 보호하고 있는 보호자의 위탁을 받아 영유아를 보육하는 기관을 말한다(영유아보육법, 제2조 제3호 및 제4호). 어린이집의 이용 대상은 보육이 필요한 초등학교 취학 전 만 6세 미만의 영유아를 원칙으로

하며, 필요한 경우 어린이집의 원장은 만 12세까지 연장하여 보육할 수 있다(영유아보육법, 제27조). 어린이집의 종류에는 국공립어린이집, 사회복지법인어린이집, 법인·단체 등 어린이집, 직장어린이집, 가정어린이집, 부모협동어린이집, 민간어린이집이 있다(영유아보육법, 제10조)[4].

‘유치원’이란 만 3세부터 초등학교 취학 전까지의 어린이인 유아(유아교육법, 제2조제1호)의 교육을 위해 유아교육법에 따라 설립·운영되는 학교를 말한다(유아교육법, 제2조제2호). 유치원의 종류에는 국립유치원, 공립유치원, 사립유치원이 있다(유아교육법, 제7조)[5].

이 외에 영유치원, 놀이학교 등의 반일제 학원 등이 있다.

1.2 아동의 언어 능력

언어는 인간에게 있어 의사소통을 하는 매우 중요한 수단이다. 인간은 울음, 얼굴표정, 몸짓 등의 음성적이거나 비음성적인 의사소통뿐 만 아니라 문자를 이용하여 의사소통을 한다. 언어는 생각과 욕구를 표현하는 기본적인 기능뿐만 아니라 행동을 변화하거나 통제하는 기능이 있다.

아동은 세상에 태어나면서부터 많은 종류의 소리를 듣게 된다. 시간이 지나면서 차차 이러한 소리들 중 언어적인 의미를 띠는 소리와 그렇지 않은 소리를 구별하는 능력이 생긴다. 또한 아동은 같은 어음 속의 소리의 차이를 각각 다른 뜻으로 이해하는 원리를 학습한다[6]. 의사소통의 방법은 보통 2세를 전후로 시작되어 취학 전까지 이루어지게 된다. 3세쯤부터는 완전히 문법적인 문장을 형성하는 것을 학습하게 되어 어느 정도 자연스럽게 회화를 할 수 있게 된다. 기존의 유치원 발음이 사라지며, 분명한 발음이 가능해진다[7].

1.3 아동의 인지 능력

인간의 인지 능력은 체계적이며 복잡한 사고를 하기 위한 기초로서, 감각적으로 얻은 자료를 해석하고 기억하며 이를 인출 및 재생하여 추리하고 활용하는 과정이다. 이러한 인지 발달은 여러 영역을 발달시키는 바탕이 되어 후에 지식을 획득하고 사고력을 증가시켜 의사

결정을 하는 데에 중요한 과정이다.

아동의 인지 능력은 연령의 증가와 함께 지속적인 발달이 이루어지며 주로 10세까지 급격히 발달한다[8]. 특히 2세에서 7세의 아동은 기억력이 증가하게 되어 사고의 폭이 넓어지게 된다. 또한 언어 능력의 급격한 발달과 더불어 사물과 사건을 내재화 하고 눈에 보이지 않는 개념을 기억하는 표상 능력이 생겨난다. 사고를 하거나 행동을 할 때 상징을 사용할 수 있게 되고, 분류화나 서열화가 가능해 진다. 또한 감각적이거나 운동적인 행위에 대한 의존이 줄어들고, 시간적, 공간적, 도덕적인 개념들을 이전보다 효과적으로 사용할 수 있다[9].

II. 연구 방법

1. 연구 대상

연구 자료는 육아정책연구소 한국아동패널의 5차년도 (2012)_beta3을 사용하였다. 표본은 층화표본추출법을 사용하여 추출되었으며, 1단계로 2006년도 기준 연간 분만건수가 500건 이상인 표본 의료 기관을 선정, 2단계로 선정된 의료 기관에서 2008년 4월부터 7월 사이에 출생한 신생아 가구를 예비표본으로 추출, 3단계로 본 조사에 응답한 2,150명의 신생아 가구를 표본으로 확정하였다[10]. 5차년도의 조사 대상은 1차년도 조사에 참여하였던 2,087명의 아동과 그 부모, 그리고 아동을 담당하는 육아지원기관의 교사이며, 총 1,703가구가 응답하였다. 설문 조사는 대상에 따라 3가지로, 부모 대상조사, 아동 대상 조사, 아동이 다니고 있는 육아지원기관의 담임교사에 대한 조사가 진행되었다[11].

본 연구에서는 1703가구 중 아동 성별, 부 취업/학업 상태, 모 취업/학업 상태, 교사 전공, 조사일, 육아지원 기관 이용시작시기, 아동 언어발달 원점수, 아동 인지발달 원점수 항목 중 무응답 값이 한 개 이상인 값을 제거 하여, 총 913가구를 대상으로 하였다.

2. 변수 정의

본 연구에서는 아동의 언어·인지발달에 영향을 미치는 변수들을 선정하여, 인구통계학적 요인, 사회경제학

적 요인, 기관특성학적 요인으로 구분하였다. 아동의 언어·인지발달 정도는 ‘영유아의 언어 인지 사회·정서 발달 평가 도구’를 통해 각각 아동 언어 발달 원점수와 아동 인지발달 원점수로 측정하였다.

인구통계학적 요인으로 아동 성별, 아동 월령, 부 연령, 모 연령을 구성하였다. 아동 성별은 남자와 여자로 구분하였으며, 아동 월령과 부모 연령을 측정하였다.

사회경제학적 요인으로는 아버지와 어머니의 최종학력을 측정하였으며, 고등학교 졸업 이하, 전문대 졸업, 대학 졸업으로 구분하였다. ‘고등학교 졸업 이하’에는 무학, 초졸, 중졸, 고졸 항목이 포함되었고, ‘대학교 졸업 이상’에는 대학교졸, 대학원졸 항목이 포함되었다.

기관특성학적 요인으로는 교사 최종학력, 교사 전공, 학급의 담당 교사수(주담임), 육아지원기관 이용기간을 구성하였다. 시설의 크기나 교사 대 아동의 비율과 같은 육아시설의 물리적 환경이나 학력, 이직률, 자격 등과 같은 교사 관련 요인들은 아동발달과 상당한 관계가 있어[12] 위와 같은 변수를 구성하였다. 교사 최종학력은 전문대학교 졸업 이하, 대학교 재학 이상으로 구분하였다. ‘전문대학교 졸업 이하’에는 고졸, 전문대 재학, 전문대 졸업 항목이 포함되었고, ‘대학교 재학 이상’에는 대학교 재학, 대학교 졸업, 대학원 재학, 대학원 졸업 항목이 포함되었다. 교사전공은 유아교육, 보육학, 아동학, 교육학 등으로 구분하였다. ‘교육학 등’에는 교육학, 미술계열(미술교육), 음악계열(음악교육), 영문학(영어교육), 체육계열(체육교육), 기타(인문, 사회, 이공계열 등) 항목이 포함되었다. 학급 담당 교사수는 주담임수를 연속변수로 측정하였다. 육아지원기관 이용기간은 연속변수로 측정되었으며, 조사일과 육아지원기관 최초이용시작시기 항목을 이용하여 도출하였다. 육아지원기관은 어린이집, 유치원, 반일제 이상 학원(영어유치원, 놀이학교 등)을 포함하였다.

아동의 언어 발달과 아동의 인지 발달은 유아의 언어, 인지, 사회, 정서 발달을 측정하기 위하여 제주특별자치도청과 교육과학기술부(2008)가 공동으로 개발한 ‘영유아의 언어 인지 사회·정서 발달 평가 도구’를 사용하여 측정하였다. 언어, 인지, 사회·정서 발달 평가 도구 평가형 중, 언어와 인지를 측정하는 24문항만을 실시하였다.

언어 능력을 측정하는 문항이 11문항, 인지 능력을 측정하는 문항이 13문항이며, 한 문항 당 점수는 1점이고, 점수가 높을수록 발달 정도가 높다. 본 연구에서 이용한 언어발달 원점수와 인지발달 원점수는 합산점수이다[13][14][표 1].

표 1. 언어·인지 발달의 발달영역과 발달지표

발달 영역	4세 발달지표	점수	5세 발달지표	점수	
언어	1. 위치부사어 이해하기	1	단어 이해하기	1	
	2. 의문사 이해하기	1	2. 비유나 은유 이해하기	1	
	3. 간접적인 표현 이해하기	1	3. 사동사 이해하기	1	
	4. 이야기의 주요 줄거리 이해하기	1	4. 농담 이해하기	1	
	5. 글자 이해하기	1	5. 범주어(분류어) 사용하기	1	
	6. 범주어(분류어) 표현하기	1	6. 연결어미가 포함된 복문 사용하기	1	
	7. 조사 사용하기	1	7. 기본 말소리를 바르게 발음하기	1	
	8. 시제 사용하기	1	8. 사물 설명하기	1	
	9. 말소리를 바르게 발음하기	1	9. 익숙한 글자 읽기	1	
	10. 정보 요구하는 질문하기	1	10. 자신의 이름쓰기	1	
	11. 이야기 다시 말하기	1	11. 끝음절 인식하여 말하기	1	
	총점	11점	총점	11점	
인지	12.13. 지각하기			2	
	14. 기억하기			1	
	15.16. 상징적 사고 표상하기			2	
	17. 논리적 추론하기			1	
	18. 문제해결하기			1	
	19. 공간개념 갖기			1	
	20. 정보수집 및 조작하기			1	
	21. 분류하기			1	
	22. 서열하기			1	
	23. 수리적 책략 사용하기			1	
	24. 패턴 만들기			1	
		총점		총점	13점

3. 통계 분석

본 연구에서는 분석을 위해 IBM SPSS Statistics 23 프로그램을 사용하였다[15]. 연구 대상 및 변수의 일반적 특성을 살펴보기 위해 빈도, 백분율을 산출하였다. 독립변수와 종속변수의, 다중 상관관계를 보기 위해 다중 선형회귀분석(multiple linear regression analysis.)을 실시하여 연구결과를 도출하였다.

III. 분석 결과

1. 연구 대상자의 일반적 특성

전체 연구대상자는 총 913명이다. 인구통계학적 요인, 사회경제학적 요인, 기관특성학적 요인과 아동 언어

발달 원점수, 아동 인지발달 원점수로 구성하였다.

인구통계학적 요인에서 성별은 아동 남자가 474명(51.9%), 여자가 439명(48.1%)으로 나타났다. 아동 월령은 평균 51.01개월, 부 연령은 평균 37.14세, 모 연령은 평균 34.80세로 조사되었다.

사회경제학적 요인에서 부 최종학력은 '대학교 졸업 이상'이 471명(51.6%)로 가장 많았으며, 그 다음으로 '고등학교 졸업 이하'가 260명(28.5%), '전문대학교 졸업'이 182명(19.9%)로 나타났다. 모 최종학력은 '대학교 졸업 이상'이 393명(43.0%)로 가장 많았으며, 그 다음으로 '고등학교 졸업 이하'가 271명(29.7%), '전문대학교 졸업'이 249명(27.3%)로 나타났다.

기관특성학적 요인에서 교사 최종학력은 '전문대학교 졸업 이하'가 538명(58.9%), '대학교 재학 이상'이 375명(41.1%)로 나타났다. 교사 전공은 '유아교육'이 538명(62.2%)로 가장 많았으며, 그 다음으로 '교육학 등'이 152명(16.6%), '보육학'이 114명(12.5%), '아동학'이 79명(8.7%)로 나타났다. 학급담당 교사수(주담임)는 평균 1.08명으로 조사되었다. 육아지원기관 이용기간은 평균 11.9개월로 조사되었다.

표 2. 연구 대상자의 일반적 특성 N=913

범주	변수	N(%) / Mean±SD(Min,Max)
인구통계학적 요인	아동 성별	
	남자	474(51.9%)
	여자	439(48.1%)
	아동 월령	51.01±1.20(48,54)
사회경제학적 요인	부 연령	37.14±3.89(27,53)
	모 연령	34.80±3.63(24,51)
	부 최종학력	
	고등학교 졸업 이하	260(28.5%)
독립 변수	전문대학교 졸업	182(19.9%)
	대학교 졸업 이상	471(51.6%)
	모 최종학력	
	고등학교 졸업 이하	271(29.7%)
기관특성학적 요인	전문대학교 졸업	249(27.3%)
	대학교 졸업 이상	393(43.0%)
	교사 최종학력	
	전문대학교 졸업 이하	538(58.9%)
종속 변수	대학교 재학 이상	375(41.1%)
	교사 전공	
	유아교육	538(62.2%)
	보육학	114(12.5%)
종속 변수	아동학	79(8.7%)
	교육학 등	152(16.6%)
	학급담당 교사수 (주담임)	1.08±0.34(1,5)
	육아지원기관 이용기간	11.90±8.49(0,40)
종속 변수	아동 언어발달 원점수	9.68±1.81(1,11)
	아동 인지발달 원점수	9.71±2.82(1,13)

아동 언어발달 원점수는 11점 중 평균 9.68점, 아동 인지발달 원점수는 13점 중 평균 9.71점으로 조사되었다 [표 2].

2. 아동 언어 · 인지 발달의 분석 결과

육아지원기관 이용기간과 아동의 언어인지 발달 간의 관계를 파악하기 위해 다중 선형회귀분석(multiple linear regression)을 실시하였다. 다중공선성 여부를 검정한 결과, 분산팽창인자(variance inflation factor; VIF)는 변수에서 1.01~2.24로 기준치 10이하였으며, 공차한계(tolerance)또한 각 변수에서 0.44~0.98로 기준치 0.1 이상이었으므로 다중공선성 문제를 배제할 수 있다.

분석결과 아동의 성별, 아버지의 최종학력, 육아지원기관 이용기간이 아동의 언어 발달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으로 나타났으며, 아동의 성별, 어머니의 최종학력, 육아지원기관 이용기간이 아동의 인지 발달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으로 나타났다.

표 3. 아동 언어 · 인지 발달에 미치는 영향

변수	다변량			
	언어 발달		인지 발달	
	B	SE	B	SE
아동성별				
남자	0			
여자	0.483***	0.119	0.892***	0.185
아동 월령	0.020	0.050	0.042	0.078
부 연령	0			
모 연령	-0.012	0.021	-0.056	0.033
부 최종학력	0			
고등학교 졸업 이하	0			
전문대학교 졸업	0.370*	0.184	-0.060	0.285
대학교 졸업 이상	0.287	0.175	0.098	0.271
모 최종학력	0			
고등학교 졸업 이하	0			
전문대학교 졸업	0.311	0.169	0.373	0.262
대학교 졸업 이상	0.318	0.179	0.755	0.277
교사 최종학력	0			
전문대학교 졸업 이하	0			
대학교 재학 이상	-0.146	0.125	0.075	0.194
교사 전공				
유아교육	0			
보육학	-0.077	0.189	-0.083	0.292
아동학	0.306	0.222	0.147	0.343
교육학 등	-0.003	0.166	-0.315	0.257
학급담당 교사수 (주담임)	-0.001	0.177	-0.486	0.274
육아지원기관 이용기간	0.020	0.007	0.027	0.011

* p<0.05, ** p<0.01, **** p<0.001

자세히 살펴보면 아동 성별이 여자인 경우, 아버지의 최종학력이 '고등학교 졸업 이하'보다 '전문대학교 졸업'인 경우, 육아지원기관 이용기간이 긴 경우에 아동의 언어 발달에 긍정적이 영향이 나타났으며, 아동 성별이 여자인 경우, 어머니의 최종학력이 '전문대학교 졸업'보다 '대학교 졸업 이상'인 경우, 육아지원기관 이용기간이 긴 경우에는 아동의 인지 발달에 긍정적인 영향이 나타났다[표 3].

IV. 고찰 및 결론

본 연구에서는 무상보육 정책인 누리과정으로 인해 육아지원기관을 이용하는 아동이 증가하고 육아지원기관을 이용하는 이 시기의 아동이 언어와 인지 영역에서 상당한 발달을 보이는 것에서 착안하여, 아동의 육아지원기관 이용기간에 따른 아동의 언어와 인지발달을 연구 주제로 설정하였다. 연구를 위해 육아정책연구소 한국아동패널의 5차년도 자료를 사용하였으며, 연구 대상은 설문에 응답한 1703가구 중 무응답 값이 한 개 이상인 값을 제외한 913가구를 대상으로 하였다. 아동의 언어·인지 발달에 영향을 주는 변수로 아동 성별, 아동 월령, 부 연령, 모 연령의 인구통계학적 요인, 부 최종학력과 모 최종학력의 사회경제학적 요인, 교사 최종학력, 교사 전공, 학급담당 교사수(주담임), 육아지원기관 이용기간의 기관특성학적 요인을 구성하였고, 아동의 언어·인지발달을 측정하기 위한 변수로 아동 언어 발달 원점수와 아동 인지 발달 원점수를 구성하였다. 분석을 위해 IBM SPSS Statistics 23 프로그램을 사용하였으며, 다중 선형회귀분석(multiple linear regression analysis.) 등을 실시하였다. 본 연구의 주요한 결과는 다음과 같다.

첫째, 아동의 성별이 남자일 경우보다 여자일 경우, 아동의 언어발달과 인지발달이 높았다. 둘째, 부 최종학력이 고등학교 졸업 이하인 경우보다 전문대학교 졸업인 경우, 아동의 언어발달이 높았다. 반면 모 최종학력이 전문대학교 졸업인 경우보다 대학교 졸업 이상인 경우, 아동의 인지발달이 높았다. 셋째, 아동의 육아지원기관 이용기간이 길수록, 아동의 언어발달과 인지발달

이 모두 높았다.

이러한 결과를 통하여 도출한 결과는 다음과 같다. 첫째, 본 연구에서 아동이 여자일 경우 언어와 인지발달이 모두 높게 나타났다. 이러한 결과를 통해 육아지원기관을 이용하는 시기의 여자인 아동의 발달이 더 빠르다는 것을 알 수 있다. 둘째, 부 최종학력이 높을 경우에 아동의 언어발달이 더 높고, 모 최종학력이 높을 경우에 아동의 인지발달이 더 높게 나타났다. 이러한 결과는 아동의 발달이 부모의 최종학력이 더 높을수록 높다는 것을 알 수 있다. 하지만 부 최종학력이 높을수록 아동의 언어발달이 연속적으로 높게 나타나거나, 모 최종학력이 높을수록 아동의 인지발달이 높게 나타나지는 않았다. 셋째, 아동의 육아지원기간이 길수록 아동의 언어발달과 인지발달이 모두 높게 나타났다. 이러한 결과는 육아지원기관의 이용기간이 아동의 발달에 미치는 긍정적인 영향을 입증하는 결과로서, 육아지원기관을 이용한 아동이 그렇지 않은 아동보다 높은 발달 수준을 보였던 Clark-Stewart(1992)의 연구와 아동의 육아지원 서비스 이용이 아동의 인지 사회 정서 발달에 긍정적 영향을 주었던 Nichd Eccm(2003, 2004)의 연구와 일치한다.

본 연구에 의하면 아동의 언어·인지발달은 육아지원기관의 이용기간이 길수록 높음을 알 수 있다. 위 결과를 보건정책에 적용하여 아동의 발달을 긍정적인 측면으로 이끌기 위한 방안으로 다음 두 가지를 제안한다. 첫째, 아동의 육아지원기관 이용을 독려하기 위하여 무상보육정책의 지원 대상과 범위를 늘린다. 현재 무상보육정책으로 시행하고 있는 '누리과정'은 유치원과 어린이집을 이용하는 아동을 대상으로 하고 있는데, 이를 유치원과 어린이집만이 아닌 모든 육아지원기관을 이용하는 아동으로 그 적용 대상을 넓힌다. 또한 현재 3-5세 아동을 대상으로 하고 있는데, 이를 육아지원기관을 이용하는 모든 연령으로 적용 범위를 넓힌다. 또한 지원액수가 현저히 적은 편이라 이를 효율적인 범위 내에서 예산을 추가 편성하여 아동의 육아지원기관 이용을 독려한다. 둘째, 전국적인 육아지원기관 수를 늘려 더 많은 아동이 정책의 혜택 속에 육아지원기관을 이용할 수 있도록 한다. 2014년 말 기준 어린이집 설치현황은

총 43,742곳이고, 이 중 국공립어린이집은 2,489곳, 약 5%에 불과하고[16], 어린이집 보육아동은 총 1,496,671명이며, 이 중 국공립어린이집을 이용하는 아동은 159,241명에 불과하다[17]. 이처럼 어린이집을 포함한 육아지원기관의 수 자체가 매우 적은 실정이기 때문에 정책 지원이 커지더라도 아동이 이용할 수 있는 육아지원기관 자체가 없어 이용이 불가능한 경우가 있다. 그렇기 때문에 육아지원기관의 수 자체를 증가시키기 위한 예산과 지원을 확대하여 아동의 육아지원기관 이용을 독려한다.

마지막으로 본 연구의 한계점과 후속 연구를 위한 제언은 다음과 같다. 첫째, 본 연구에서는 유아의 언어, 인지, 사회, 정서 발달을 측정하기 위하여 '영유아의 언어인지 사회·정서 발달 평가 도구'를 사용하였기 때문에 아동의 발달 정도를 언어, 인지, 사회, 정서의 네 가지 측면에서 전반적으로 살펴보는 것이 적절하나, 한국아동패널 5차년도 조사에서 언어와 인지 발달만을 측정하였기 때문에 모든 항목을 살펴보지 못했다는 연구적 아쉬움이 남는다. 따라서 후속연구에서는 아동의 언어와 인지발달 외에 사회와 정서발달을 살펴보는 것이 필요하다. 또한 육아지원기관 이용기간에 따른 아동의 발달 외에도 아동의 행동과 스트레스 등에 관한 연구도 의미가 있다.

둘째, 본 연구에서는 한국아동패널의 5차년도 자료만을 사용하여 분석하였기 때문에 시간에 변화에 따른 아동의 발달에 대해 살펴보지 못하였다. 따라서 후속연구에서는 5차년도 이후의 자료를 이용하여 육아지원기관 이용기간이 아동의 발달에 미치는 연속적인 효과를 살펴보는 것이 필요하다.

참 고 문 헌

[1] <http://www.moe.go.kr/2016nuri/index.jsp>
 [2] 이진화, 박창현, 윤지연, 「3-5세 누리과정」 운영 및 이용 실태와 정책 효과 분석, 육아정책연구소, 2015.
 [3] 최윤경, 이운진, 김세현, 나지혜, *아동 발달관점에*

서 본 육아지원기관 이용시간 고찰: 스트레스호르몬 조사를 중심으로, 육아정책연구소, 2012.

- [4] 보건복지부, 영유아보육법, 2016.
 [5] 보건복지부, 유아교육법, 2015.
 [6] 고순옥, *영유아 정상아동의 언어발달과 사회 정서 발달 및 환경요인과의 상관관계*, 아주대학교, 석사학위논문, 2004.
 [7] 박이심, *대리양육자 교체 수에 따른 취업모 자녀의 언어발달 및 공격성 연구*, 동아대학교, 석사학위논문, 2003.
 [8] 채영란, *유아의 그리기표상능력의 발달 특성과 인지능력 및 재인지역력과의 관계*, 전남대학교, 박사학위논문, 2007.
 [9] 민성혜, *어머니-자녀 상호작용과 유아의 인지 언어발달간의 관계*, 이화여자대학교, 석사학위논문, 2000.
 [10] <http://www.panel.kicce.re.kr>
 [11] 김은설, 도남희, 왕영희, 송요현, 이예진, 정영혜, 김영원, *한국아동패널 2012*, 육아정책연구소, 2012.
 [12] 이민경, *아동발달에 영향을 미치는 보육관련변인에 관한 메타분석*, 숙명여자대학교, 석사학위논문, 2001.
 [13] 한국아동패널 도구프로파일, *아동 특성 변인* [영유아 언어, 인지, 사회 정서 발달 평가], 한국아동패널, 2014.
 [14] 권하나, *유아의 언어, 인지, 사회 정서발달과 또래 간 인기도의 관계*, 이화여자대학교, 석사학위논문, 2009.
 [15] SPSS version 23.0 (Statistical Packages for Social Science Inc., Chicago, IL, USA)
 [16] 통계청, *연도별 어린이집 설치현황*, 2014.
 [17] 통계청, *연도별 어린이집 보육아동현황*, 2014.

저 자 소 개

이 예 진(Ye-Jin Lee)

준회원



- 2011년 3월 ~ 현재 : 을지대학교 의료경영학과(보건학사)

<관심분야> : 의료경영, 보건통계, 보건정책

박 현 춘(Hyunchun Park)

정회원



- 2013년 2월 : 을지대학교 의료경영학과(보건학사)
- 2013년 3월 ~ 2015년 2월 : 을지대학교 의료경영학과(보건학석사)
- 2015년 3월 ~ 현재 : 을지대학교 의료경영학과(보건학박사)

<관심분야> : 의료경영, 보건정책, 보건통계

노 진 원(Jin-Won Noh)

정회원



- 2002년 2월 : 이화여자대학교 통계학, 경영학
 - 2005년 2월 : 이화여자대학교 경영학(생산관리) 석사
 - 2008년 8월 : 고려대학교 의과대학 보건학협동과정(보건학박사)
 - 2011년 12월 : Johns Hopkins University MPH, MBA
 - 2012년 3월 ~ 현재 : 을지대학교 의료경영학과 조교수
- <관심분야> : 병원경영, 의료경제성평가, 병원재무회계